

동김녕(東金寧) 송택(宋宅)의 송동지 영감 송선주(宋同知令監宋船主)가 살아실 때, 사또(使道)의 멍(命)을 받아 단셋들<sup>1)</sup> 구뭉 당헤야 송동지 영감이 상서월<sup>2)</sup> 상시관(上試官)에 진상(進上)을 바찌레 갑데다. 산(山)으로 초기(樵楫) 해강(海角)으로 우미(天草) 전각(靑角) 메역 펜포<sup>3)</sup> 진상을 바찌 두고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이 한고향(還故鄉)으로 돌아올 때, 광청<sup>4)</sup>을 들고 싶어, 광청<sup>4)</sup>을 허정승택(許政丞宅)의 주인(主人) 밋어<sup>5)</sup> 저녁상을 받고 나니 날은 먹정<sup>6)</sup> 어둑어지고 창문 밧길<sup>6)</sup> 바레여 보니 모든 집안 초경<sup>7)</sup>이 고이 든 밤에 이상하게도 초이경(初二更)이 넘어 삼경(三更)이 근당허여도 잠이 아니 든다.

궂궂 하게 앓았다가 금마답에 나오라<sup>7)</sup> 동서(東西)레레 스방(四方)을 두리두리<sup>8)</sup> 바레여보니, 이상하게도 문밧[門外] 사랑간에 희미한 불빛이 비추와, 송동지영감이 발자국을 죽여가며 숨절소릴<sup>9)</sup> 누추와가며 문 곁에<sup>10)</sup> 츄츄(次次) 몸을 부찌 사랑방을 바레여 보니, 어여쁜 아기씨가 총각머리 풀어놓고 밋을 앓아 생각하는 듯 마주 창문 밧[窓門外]를 내다보아, 송동지영감이 아기씨 모르게 뒤돌아사저 하니, 광창문(廣窓門)을 올명<sup>11)</sup> 아기씨가 말을 하뉘,

“제주(濟州) 송동지영감님, 허실 말이 있사오니 어서 바빠 문안으로 들어오십서.”

송동지 영감 어찌할 수 엇어, 마음이 중천(衝天)하고 가슴[胸]이 뛰여 온 몸을 달달 털명 가단<sup>12)</sup> 몸을 돌려 아기씨 방안으로 들어가 몸을 주츠려 앓았더니<sup>13)</sup> 아기씨가 말을 하뉘,

“겁내지 말앙 펜(便)히 앓입소서.”

미룻<sup>14)</sup> 올 줄이나 안 듯이 술상을 출려났다 얼른 앓다놓고<sup>15)</sup>,

“나가 이 밤중까지 영감님이 나오카<sup>16)</sup> 허여 창문밧을 슬피는 중, 영감님이 나광 뜻이 맞인 듯이 이제궂지 잠이 안오시고 오죽이나 심심하기 여궂지<sup>17)</sup> 왔습네까. 잠도 아니오시고 이 술 한 잔을 드시와 나의 뜻대로 심심풀이나 하기 어찌오리까?”

“어서 그리 흡시다.”

헌 잔 술을 거부<sup>18)</sup> 먹는 게 술이 만족한 것 궂따지고, 아기씨가 말을 하뉘,

“나는 허정승(許政丞)의 딸님으로 총각머리 등에 진 처녀(處女)이건만 광청<sup>4)</sup>을 안 궁녀(宮女)의 몸으롭써 장차(將次) 부모의 멍영(命令)대로 혼연(婚姻)을 허여사 할 몸이고 영<sup>19)</sup> 이 앞으

1) 단셋들 : 선달을 일컫는 말.

2) 상서월 : 상(上)서울.

3) 펜포 : 오징어.

4) 광청<sup>4)</sup> : 미상 지명.

5) 주인 밋어 : ‘주인밋다’함은 유숙(留宿)하다의 뜻.

6) 밧길 : 밖을.

7) 금마답에 나오라 : 마당에 나와.

8) 두리두리 : 두리번두리번.

9) 숨절소릴 : 숨결소리를.

10) 곁에 : 가(邊)에.

11) 올명 : 열면서.

12) 가단 : 가던.

13) 주츠려 앓았더니 : 움츠려 앓았더니.

14) 미룻 : 미리.

15) 앓다놓고 : 가져다 놓고.

16) 나오카 : 나올까.

17) 여궂지 : 여기까지.

18) 거부 : 거꾸.

로 혼연을 헝쟁 헝민 나가 그 행동(行動)을 혼번 헝고 싶으오니, 서로 반대(反對)로 나의 입성(衣服)은 영감이 입곡 영감의 입성은 나가 입영 놉도 자는 야밤에 단돌이서 이 날이 새도록이라도 새각씨놀이<sup>20)</sup> 헝기가 어찌헝오리까?”

술에 만족한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 대답(對答)만 예예 헝다 보니, 어느 스이 내 몸이 벤색(變色)이 돼고, 연분홍저구리에 대홍대단(大紅大緞) 연분홍치매에 구실족도리<sup>21)</sup> 꽃족도리가 머리 우의 오른 것 7따지고, 나 눈 앞원 보니 입넙은<sup>22)</sup> 짓갓에<sup>23)</sup> 백도폭(白道袍)을 둘러입어 흰쌀 푼 체[扇]로 앞을 막아 사 이서, 서로 눈천을<sup>24)</sup> 바레다보니 인연(因緣)이 똑 들어맞인 듯허여진다.

아기씨도 올바른 정신(精神)이 간 곳 엇어지고, 물멍지(一明紬) 한삼(汗衫) 붓잡아 얼음 7뜯 손질을 마주 잡았더니 이맹이<sup>25)</sup> 족도리도 벗어지고 연분홍 다홍치매도 벗어져, 아기씨 입넙은 짓갓도 벗어지고 백도폭(白道袍)을 벗어자쳐 꿈결 7찌 지나는 게, 송동지영감도 시상(世上)이 나 시상이고<sup>26)</sup> 광청아기도 영감의 신원(伸冤)과 원정(原情)을 다 들어준다.

먼동이 녀엄 들러<sup>27)</sup> 개 쥐도 모르게, 송동지영감 이녁[自己] 이불 쏘곶으로<sup>28)</sup> 돌아와, ‘장차(將次) 이 일이 어찌 될 일이고.’

아침 밥상이 들어오고 허정승(許政丞)을 이별(離別)하야 먼 문 밖[外] 나사고 영암(靈岩) 덕진도리 베진고달또 포구(浦口) 안7지 오도록 자국 자국 생각허여도 꿈인가 생중(生中)인가.

베진고달또 베[船]를 노아 한고향(還故鄉)을 돌아오라<sup>29)</sup> 동안 안[東軒內] 관원(官員)에 원정(原情)을 들고, 다시 두번차 상시관(上試官) 진상(進上)을 바쳐두고 7려올 때, 광청7을 허정승덥에 또시<sup>30)</sup> 주인(主人)을 멎어 ‘이 날이 어느 제민<sup>31)</sup> 어둡으리.’<sup>32)</sup> 지드리다 그 날이 제우<sup>33)</sup> 어둡어져, 광청아기 스랑방을 돌려든다.

들려들어 보니 아기씨 비옥(翡玉) 7뜯 양지엔<sup>34)</sup> 서산(西山)에 비지듯이 눈물을 흘리멍.

“자, 이 일을 어찌헝민 조오리까?”

아기씨 흰 얼굴이 검은 얼굴 돼여지고 베[腹]는 태독[大瓮]7찌 불어지고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 베도폭[麻道袍] 자락을 붓잡아놓고 노을 줄을 몰라지고 움으로 초이경(初二更)이 근당(近當) 헝다.

그 때 시절, 육짓사름[陸地人] 제주(濟州) 못오고 제줏여즈(濟州女子) 육지 못갈 때난, 송동지 영감 아기씨 베도폭자락 노은 틈을 얼른 타, 창문 밧걸<sup>35)</sup> 내들아 아무말 엇이 영암(靈岩) 베진고 달또 7려오라 벳장 알에 앓았더니, 아기씨는 이날 밤을 새우민 아바님 손에 죽을 생각헤야 흰비

19) 영헝난 : 이리하니. 이러니.

20) 새각씨놀이 : 색시놀이.

21) 구실족도리 : 구슬족두리.

22) 입넙은 : 갓양태가 넓은.

23) 짓갓 : 짓갓. 곧 깃(羽)을 꽃은 갓.

24) 눈천을 : 눈(眼)을.

25) 이맹이 : 이마.

26) 나 시상이고 : 내 세상이고.

27) 녀엄 들러 : 잇몸 들러. 동이 틈을 뜻함.

28) 쏘곶으로 : 속으로.

29) 돌아오라 : 돌아와.

30) 또시 : 다시.

31) 어느 제민 : 언제면.

32) 어둡으리 : 어두우랴.

33) 제우 : 겨우.

34) 양지엔 : 얼굴엔.

35) 밧걸 : 밖을.



단 홑저구리 대홍대단(大紅大緞) 홑단치메<sup>36)</sup> 둘러입고 서대상지<sup>37)</sup> 옆의 차, 두릉베<sup>38)</sup>에 영암(靈岩) 덕진드리 베진고달또 노력오라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 베[船]를 쫓고, 이물사공[船頭沙工]안티 말을 하되,

“송동지 영감을 만나레 가오니 발판드리나 놔주기 어쩍네까?”

이물사공이 얼른 발판을 놓고, 아기씨 조심조심 무거운 몸천[肉身]에 올라가노렌 하난, 이물사공 베판드리를<sup>39)</sup> 안테레<sup>40)</sup> 들어등기여, 서대상지 옆에 찬 양<sup>41)</sup> 감태(甘苔) 꺾은 머리 골골산산 허터놓고 아기씨 물레레 담방 빠져 이삼스월(二三四月) 국순<sup>42)</sup> 버리듯 웨여야<sup>43)</sup> 얼음산[氷山] 구름꺾듯<sup>44)</sup> 짓녹아집데다.

물때가 좋아지고 영평바당[延平海] 실브름 나니,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

“이물사공 고물사공. 닷줄을 거두와 베 노라.”

이물닷 고물닷 등기여 깃발을 둥둥 올려 스수와당<sup>45)</sup> 베를 노았더니, 송동지 영감 총각머리 등에 진 아기씨가 이물코지로 뱃발판을 발아<sup>46)</sup> 올라오다 물에 떨어지는 듯, 눈에 펜식(變識)이 자꾸 뵈여 ‘필아곡절(必有曲折) 이상한 일이다.’

한고향(還故鄉)으로 돌아와 동김녕(東金寧) 포구(浦口)에 베[船]를 들여메여, 이 때 송동지 영감 말젓돌아기[末女] 뱃머리 아바님을 데동(帶同)하고 인도(引導)하여 가져 지드리단<sup>47)</sup> 난디듯이 아기씨가 허파[肺]에 브름이 든 듯 감태 꺾은 머리 허봉쳐<sup>48)</sup> 놓고 부모성제간(父母兄弟間)도 몰라지고 동김녕 포구안(東金寧浦口內) 쌀대 꺾은<sup>49)</sup> 물절데레<sup>50)</sup> 돌려들저.<sup>51)</sup>

송동지 영감 돌려들어 아기씨 허리를 붓잡아,

“이거 웬일이냐?”

대답(對答)하는 아기씨 말이,

“나는 광청꺾을 광청아기 궁녀(宮女)로다. 시녀(侍女)로다. 어야뒤야<sup>52)</sup> 살강깃소리<sup>53)</sup> 진바당 진소리로<sup>54)</sup> 어서 놀자.”

광청아기 혼령(魂靈)이 송동지영감 말젓돌아기[末女]에 이탁(依託)이 뵈여, 그제야 송동지영감이 내 잘못을 알고,

“청춘(靑春)의 원훈(怨恨)이나 풀어주저. 신의성방(神의刑房) 불르라.”

신의성방 불러라. 요왕국(龍王國)으로 광청아기 초혼(初魂) 이혼(二魂) 삼혼(三魂) 건저, 송동지

36) 홑단치메 : 홑치마.

37) 서대상지 : 대바구니.

38) 두릉베 : 불룩 나온 베.

39) 베판드리를 : 발판다리를.

40) 안테레 : 안으로.

41) 찬 양 : 찬 채로.

42) 국순 : 박의 순(荀).

43) 웨여야 : 외쳐야.

44) 구름꺾듯 : 같이. 같으듯.

45) 스수와당 : 사수(泗水) 바다. 깊은 바다의 뜻으로 씀.

46) 발아 : 타.

47) 지드리단 : 기다리다가.

48) 허봉쳐 : 풀쳐.

49) 쌀대 꺾은 : 쌀대 같은.

50) 물절데레 : 물결로.

51) 돌려들저 : 돌려들자고.

52) 어야뒤야 : 살강깃소리의 선·후렴구(先·後敍句).

53) 살강깃소리 : 닷 감는 소리.

54) 진바당 진소리 : 긴 바다 긴 소리.

영감 식찰아들[第三男] 세명 올려<sup>55)</sup> 축지방(祝紙榜) 하고 아기씨 뭇친<sup>56)</sup> 간장 서린 간장 원성귀 제맞이<sup>57)</sup> 올려 신전국태추태<sup>58)</sup>로 일천간장(一千肝臟) 풀렸더니, 송동지 영감댁(宋同知令監宅)이 삽시에 거부(巨富) 돼고, 생월(生月) 생명(姓名) 올령 축지방(祝紙榜) 고(告)훈 식찰아들 상시관(上試官)에 무과급제(武科及第)하여, 광청아기 혼령(魂靈)으로 만대유전(萬代遺傳)을 시기고 보니, 동김녕(東金寧) 송댁(宋宅)의 줄이 벗고 발이 번어 광청아기 광청일월(一日月) 만대유전(萬代遺傳)을 시기웁고 신정국태추태로 스당클에 열두석시 중당클에<sup>59)</sup> 오섯석시<sup>60)</sup> 앓인제예<sup>61)</sup> 삼석시 해[年] 넘는 철갈이로,<sup>62)</sup> 서대상지<sup>63)</sup> 안에 물멍지(一明紬) 강멍지(一明紬) 열두무색 출려 놓고 상고팡(上庫房)으로 우망(爲望)하여, 삼명일(三名日) 기일제스(忌日祭祀) 일처이(一切) 호오웁고 가지가지 벌어지던 조손(子孫)덜엔 초상(祖上)의 간장을 풀리민 조은 베실[官]도 신나수와<sup>64)</sup> 주고 엇는 제물(財物) 짝른<sup>65)</sup> 멍(命) 짝른 복(福)도 잇어주고 송댁(宋宅)에 전대전승(傳代傳承)을 시겨 웁던 송동지 영감(宋同知令監) 광청아기 광청일월 본산국 신산국이<sup>66)</sup> 뉘웁네다. 난산국이 뉘웁네다.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동김녕 송댁의 송동지 영감 송선주가 살았을 때, 사또의 명을 받아 설달 그믐 당하여 송동지 영감이 서울에 진상을 바치러 갑디다. 산에서 나는 버섯 바다에서 나는 우무 청각 미역 오징어를 진상바쳐두고 송동지 영감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광청고을에 머물고 싶어, 광청고을 허정승댁에 유숙합디다. 저녁상을 받고 나니 날은 먹장같이 어두워지고 창문 밖을 바라보니 모든 집안이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초이경이 넘어 삼경이 가까와도 잠이 안 듭디다.

갑갑하게 앉았다가 마당에 나와 동서로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문 밖 사랑방에 희미한 불빛이 비칩디다. 송동지 영감이 발자국을 죽여가며 숨결소리를 낮추어 가며 문가에 차차 몸을 붙여 사랑방을 바라 보니, 어여쁜 아기씨가 총각머리를 풀어놓고 앉아 뉘를 생각하는 듯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눈이 마주칩디다. 송동지 영감이 아기씨 모르게 뒤돌아서려 하니, 창문을 열면서 아기씨가 말을 하되,

“제주 송동지 영감님, 할 말이 있사오니 어서 바빠 문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송동지 영감은 어찌할 수 없어 마음이 충천하고 가슴이 뛰어 온 몸을 달달 떨면서 가던 몸을 돌려 아기씨 방안으로 들어가 몸을 움츠려 앉았더니, 아기씨가 말을 하되,

“겁내지 말고 편히 앉으십시오.”

미리 올 줄 안 듯이 술상을 차려놨다가 얼른 가져다 놓고,

“내가 이 밤중까지 영감님이 나올까 하여 창문 밖을 살피던 차에 나와 뜻이 맞은 듯이 영감님

55) 세명 올려 : 양자 세움의 뜻. 성명의 잘못.

56) 뭇친 : 맺힌.

57) 원성귀제맞이 : 원성기도제맞이. 굿을 일컫는 말.

58) 신전국태추태 : 무악기(巫樂器) 소리를 일컫는 말.

59) 중당클 : 삼당클굿을 뜻함. 곧 삼방(마루방) 세 벽에 당클(祭棚)을 매고 하는 큰굿.

60) 오섯석시 : 여섯 석(席).

61) 앓인제 : 앓은 제(祭).

62) 철갈이 : 신년제명(新年祭名).

63) 서대상지 : 대바구니.

64) 신나수와 : 나수와. 곧 나게 하여. ‘신-’은 접두사.

65) 짝른 : 짝은.

66) 신산국 : 본산국 또는 난산국과 같은 뜻으로, 조운(調韻)을 위한 조어(造語).



이 나오셨는데, 이제까지 잠이 안 들어 오죽 심심하여 여기까지 왔습니까? 잠도 안 오고 하니 이 술 한잔을 드시고 나의 뜻대로 심심풀이나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서 그리 합시다.”

한 잔 술을 거푸 마셔 술이 만족한 듯 한 때, 아기씨가 말을 하되,

“나는 허정승의 따님으로 총각머리를 등에 진 처녀이지만, 광청고을 안 처녀의 몸으로 장차 부모의 명령대로 혼인을 하여야 할 몸이고, 그러니 앞으로 혼인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 행동을 한번 해 보고 싶으니, 서로 반대로 나의 의복은 영감이 입고 영감의 의복은 내가 입어서 남이 자는 야밤에 단 둘이서 이날이 새도록 색시놀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술에 만족한 송동지 영감은 대답만 ‘예예’ 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자신의 몸이 변색이 되는데, 연분홍저고리에 대홍대단 연분홍치마 구슬족두리 꽃족두리가 머리 위에 올린 것 같고, 눈 앞에는 보니 갓양태가 넓은 갓에 백도포를 둘러 입어 부채를 들고 앞을 막아 서 있어서, 서로 눈을 바라보니 인연이 꼭 들어맞은 듯합디다.

아기씨도 올바른 정신이 간 곳 없고, 물명주 한삼 붙잡아 얼음 같은 손길을 마주 잡았더니, 이마의 족도리도 벗어지고 연분홍 다홍치마도 벗어져, 아기씨 넓은 갓도 벗어지고 백도포를 벗어 던져 꿈결같이 지나는 것이 송동지 영감도 세상이 내 세상이고 광청아기도 영감의 신원과 원정을 다 들어줍디다.

먼동이 터 올 때 개 쥐도 모르게, 송동지 영감은 자기 이불 속으로 돌아와 ‘장차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가.’

아침 밥상이 들어오고, 허정승을 이별하여 먼 문 밖을 나서서 영암 덕진다리 베진고달또 포구 안에 올 때까지 자꾸 생각하여도 꿈인가 생시인가 모릅디다.

베진고달또에 배를 놓아 고향으로 돌아와 동헌 안 관원에게 원정을 들고, 다시 두번 째 서울 진상을 바치고 내려올 때, 광청고을 허정승댁에 다시 유숙하는데 ‘이날이 언제면 어두우리.’ 하고 기다리다 그날이 겨우 어두워지니, 광청아기 사랑방으로 달려듭디다.

달려들어 보니, 아기씨 옥 같은 얼굴에 서산에 비 내리듯 눈물을 흘리면서,

“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아기씨 흰 얼굴은 검은 얼굴 되고 배는 큰 항아리같이 불고, 송동지 영감 배도포 자락을 붙잡아 놓을 줄을 모른 채, 우는 것이 초이경이 가까와집디다.

그 때 시절, 육지 사람 제주 못 오고 제주 여자 육지 못 갈 때니, 송동지 영감은 아기씨가 도포자락 놓은 틈을 타서 열린 창문 밖에 내달아 아무 말 없이 영암 베진고달또에 내려와 배 밑에 가 앉아 있습니다.

아기씨는 이날 밤을 새우면 아버님 손에 죽을 생각에 흰비단 홀저고리에 대홍대단 홀단치마를 둘러 입고 대바구니를 옆에 차고, 불룩 나온 배를 끌어 영암 덕진다리 베진고달또로 내려와 송동지 영감의 배를 찾고, 이물사공에게 말을 하되,

“송동지 영감을 만나러 가니 발판다리나 놓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물사공이 열린 발판을 놓으니, 아기씨가 조심조심 무거운 몸에 올라가는데, 이물사공이 발판다리를 안으로 들어 당겨 버리니, 대바구니 옆에 낀 채로 감태 같은 머리를 풀어헤치며 아기씨는 물에 풍덩 빠져 이삼사월 박의 순을 버리듯 외쳐봐야 얼음산에 구름같이 녹아 버립디다.

물때가 좋아지고 연평바다에 실바람이 부니 송동지 영감이,

“이물사공 고물사공아 닻줄을 거두어 배를 놓아라.”

이물닻 고물닻을 당겨 깃발을 뚱뚱 올려 사수바다로 배를 놓았더니, 송동지 영감은 총각머리를 등에 진 아기씨가 이물 끝에서 배 발판을 밟아 올라오다가 물에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하여,

“필유곡절 이상한 일이다.”

의심이 듭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동김녕 포구에 배를 들여매는데, 이때 송동지 영감 막내딸아가기가 뱃머리에서 아버님을 대동하고 돌아가려고 기다리다가 난데없이 아기씨가 허파에 바람이 든 듯 감태같은 머리를 풀쳐 놓고 부모형제간도 몰라보고, 동김녕 포구 안의 살대같은 물결로 달려들려고 합니다.

송동지 영감이 달려들어 아기씨 허리를 붙잡고,

“이게 웬 일이냐?”

대답하는 아기씨 말이,

“나는 광청고을 광청아기 궁녀로다. 시녀로다. 어야디야 살강깃소리 긴바다 긴소리로 어서 놀자.”

광청아기 혼령이 송동지 영감 막내딸아기에 의탁했음을 알고, 그제야 송동지 영감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청춘의 원혼이나 풀어주자. 심방을 불러라.”

심방을 불러다 용왕국으로부터 광청아기의 초혼 이혼 삼혼을 건져내어 송동지 영감 셋째 아들을 양자로 세워 축지방을 올리고, 아기씨가 맺힌 간장 서린 간장 원성기도 제맞이 굿을 하여 무악기로 일천간장을 풀었더니, 송동지 영감댁이 삽시에 거부가 됩니다. 양자로 올려서 지방을 쓰고, 축문을 올려 축지방을 고한, 셋째 아들은 서울로 가 무과급제를 하고, 광청아기 혼령으로 만대유전을 시킵니다.

동김녕 송댁은 줄이 뻗고 발이 뻗어 광청아기 광청일월을 만대유전시킵니다. 이 신은 무악기로 사당클곳에 열두석시 중당클곳에 여섯석시 앞은제에 삼석시로 놀리는 조상이고, 해넘으면 철갈이로, 대바구니 안에 물명주 강명주 열두 물색을 차려 상고방으로 위하여 삼명일 기일제사 때 모십니다. 이렇게 가지가지 벌어지던 자손들이 조상의 간장을 풀리면 좋은 벼슬도 하게 하고 없는 재물 짧은 명 짧은 복도 이어줍니다.

송댁에 전대전승을 시켜주던 송동지 영감 광청아기 광청일월 본풀이입니다.